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28~5/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2	불교성전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3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4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김윤수	한산암
5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 구슬	김성철	오타쿠
6	딱돌 해설서 : 바르도에서 닦지 않고 해탈하는 법	중암선해	금빛소리
7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 내려놓고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법	법륜스님	정토
8	초기 불교 입문 : 초기 불교 그 핵심을 담다	각묵스님	초기불전연구원
9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 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10	염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권수염불법문)	원영굉오/정원규	불광출판사

책세상

당신은 불교를 알면서 하고 있습니까?



불교를 안다는 것 불교를 한다는 것

중현 스님 지음

불광 펴냄/1만 8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는 사찰에 오지 않아도 각자의 삶에서 실천하며 사는 데 있다'

무등산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이 코로나19로 절에 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지상 법문집이다. 코로나19와 인공지능의 시대에 종교의 자리는 점점 줄고 있다.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종교란 무엇인지 묻고, 그동안 우리는 지식 중심의 불교를 해온 것은 아닌지 성찰한다. 그래서 미래의 불교는 개인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인생 규범'의 종교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로 이해해온 불교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재해석해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1장 '불교를 안다는 것'은 공(空), 무아(無我), 오온(五蘊), 윤회 등 익숙하게 들어온 19가지 개념을 쉽게 풀고 일상에서 녹아들도록 이끈다. 2장 '불교를 한다는 것'에서는 저자의 체험과 사유로써 펼쳐지는 불교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책은 앎과 삶을 잇는 지혜를 스스로 깨치도록 돕는다.

저자 중현 스님은 "'안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불교가 위대한 종교인 이유는 아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체험하고 스스로 깨치는 데 있다.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체험하고 스스로 깨쳐야만 그것이 불교"라고 말한다.

무등산 증심사에 가면 마음 얻을 수 있다

무등산은 불교적으로 풀면 '모두가 같다', 즉 '일체가 하나다'라는 뜻이다. 무등산 기슭에 증심사가 자리해 있다. 증심(證心)은 '마음을 증득하다, 깨닫다, 맑히다'라는 뜻이다. 무등산 증심사에 가면 세상 풍파와 맞설 든든한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증심사도 타격을 입었다. 주지 중현 스님은 그야말로 인적이 끊어져 '절깐'이 되어버린 텅 빈 절 마당을 보며 생각이 많아졌다. 절이란 무엇인가? 또 스님이란 무엇인가? 사찰은 사람들이 찾아와 삶의 고단함을 씻고 스님에게서 인생 지혜 하나쯤 받아오는 곳인데, 사람 없는 절이 무엇이고 스님은 무슨 소용일까? '불교는 사찰에도 없고 스님에게도 없다' 중현 스님이 내린 결론이다. 불교는 바로 각자의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 스님은 절에 사람이 오지 않는 것쯤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며, 승복 입은 자신이 할 일은 멀리 있는 이들이 스스로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을 깨달았다. 지난해 절을 찾은 사람들과 나누었던 법문을 추려 책으로 묶어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교는 이해하는 것이 아닌 익히는 끝없는 복습

법정 스님은 '종교 생활은 복습'이라고 했다. 불교에 대한 편견 중 하나는 '불교는 복잡하고 심오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고 공부해야 하는 종교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교는 부처님 재세 당시부터 하나의 수행체계로, 교리는 실천을 위한 바탕이었다. 이는 2500년이 지난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불교는

안다는 것은 하는 것이고 달라지는 것
생활서 재 해석한 편안한 불교 교리서
행으로 이은 진정한 앎에 대한 이야기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이 책의 저자 중현 스님은 '불교는 종교의 외피를 두른 수행 시스템, 즉 수행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수행이란 무엇인가? 수행은 '행복하기 위해서 행(行)을 닦아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행복을 가로막는 수많은 방해 요소('번뇌'로 총칭되는 온갖 생각과 감정)들을 잘 관리하고, 그것이 마침내 유기적인 이타 행위로 발현되도록 이끄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수행은 '자신과의 대화'이다. 문제가 닥칠 때마다 자신과 대화하며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법정 스님이 말한 '복습'은 이러한 끊임없는 대화, 실천, 연습을 가리킨다. 불교는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해야 하는 종교임을 저자는 거듭 강조한다.

종교가 사라진 시대, 불교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나 한 번쯤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종교가 필요할까를 생각해 본다. 종교와 과학, 철학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오래전 종교는 우주의 근원과 생성,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를 밝히고 해석하는 일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세상의 규칙과 규범이 만들어졌다. 해석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차츰 철학이 분리되었고, 철학적 담론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과학이 발달하였다. 철학과 과학의 발달로 종교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었다.

바야흐로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시대, 종교의 신비스러운 외피가 벗겨진 오늘날 종교의 의미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저자는 지금이야말로 종교가 가장 필요한 때라고 말한다. 현대인들이 고뇌하고 방황하고 심리적 고통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의 기준을 스스로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전에는 사회 구조가 단순하고, 종교와 사회가 제시하는 삶의 틀 즉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었다. 또 도덕과 윤리 규범은 매우 자세했으며 개인은 자연스럽게 이를 수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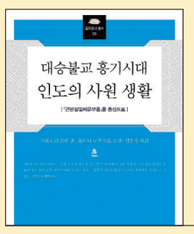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삶의 구조가 다양해진 현대에는 그 기준이 모호해졌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기준과 상식은 빈약해졌다.

저자는 이 헐거워진 공간을 불교를 포함한 종교가 채워야 한다고 말한다. 일방적인 권유와 지침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맞춰 개인 스스로 생각하고 수용하여 자기만의 바른 규범을 만드는 데 종교가 풍부한 자양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삶을 더 풍요롭게, 영혼의 깊이를 더하고, '바깥'을 더 많이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오늘날 종교가 할 일이다. 저자의 이러한 주장이 녹아 있는 이 책은 지금 바로 내 삶에 폭과 깊이를 더해주는 실용적인 불교 입문서이다.

▲저자 **중현 스님**은?

20대 내내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전념했고, 30대에 프로그래머로 변신해 고려대장경 전산화 작업에 참여했다. 1998년 송광사서 범일 보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봉암사 송광사 화엄사 석종사 등 제방 선원서 정진했다. 화순 용암사 주지와 〈월간 송광사〉 편집장을 지냈으며, 〈광주일보〉 등 일간지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현재 무등산 증심사 주지로 살며 유튜브 채널(증심사)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저서로는 〈길고양이의 법문〉이 있다.

대승불교 기존 통설 뒤엎는 新 학설 제시



대승불교 흥기시대 인도의 사원생활

그레고리 쇼펜 지음/오다니 노부치요 일역/임은정 한역/운주사 펴냄/2만3천원

인도에서 초기 불교교단과 비구들의 생활 실태를 〈근본설일체유부율〉에 기초해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대승불교의 기원과 발전, 사원 생활의 실상에 대해 기존의 통설을 뒤엎는 새로운 학설을 제시했다. 철저히 자료에 기초한, 새로운 문제의식과 주장이 흥미롭고 신선하다.

일반적으로 서기 1~5세기는 대승불교가 기존의 부파 불교를 능가하며, 매우 눈부시게 활동한 시대라고 보는 것이 인도 불교사서 정설로 인정된다. 하지만 '과연 대승불교가 당시 그 정도의 세력을 가진 존재였을까?'라고 의문을 던짐으로써 저자는 전혀 새로운 사실들을 제시한다.

이 책은 일본 오타니(大谷) 대학교서 1996년 11월과 1997년 10월, 각각 2주간에 걸쳐 그레고리 쇼펜 교수가 〈대승불교 흥기 시대 인도의 사원불교에 대해서〉라는 주제로 발표한 특별세미나의 강의록과 강연 원고를, 그의 보좌역을 맡은 오다니 노부치요 교수가 일본어로 번역해 책으로 묶은 것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대승불교의 기원에 대한 논쟁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룰 뿐만 아니라 1세기부터 4 · 5세기에 걸친 시대의 불교 교단에 대한 상황이나 비구의 생활실태에 대해, 소승의 계율서 중 하나인 〈근본설일체유부율〉에 기초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율장에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비구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기존까지 비구는 3의(衣) 1발(鉢)과 여수낭(濾水囊)과 좌구(坐具) 등 최소한의 물건 이외에는 재산을 사유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당히 고가인 장식품까지 소유했음을 명확히 밝힌다. 학습이나 명상에 몰두했을 것으로만 여긴 비구들이 현실에서는 건축 일을 감독하거나 금융업과 관련된 일을 했으며, 사원 안팎에서 실로 다양한 업무에 종사했었다는 것까지 제시했다.

이 책에서는 일본판과 달리 오다니 노부치요의 〈후기〉를 본문 앞에 배치했다. 후기에는 저자인 쇼펜 교수 개인에 대한 이해와 그의 불교학 방법론과 대승불교에 대한 견해가 소개돼, 이에 대해 이해하고 본문을 읽는다면 훨씬 쉽고 재미있으리라고 한국 역자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서장에서는 인도와 중국에서의 불교 전개를 개괄하면서, 중국불교에 대한 자료가 오히려 인도 초기 대승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해보려는 시도에 너무 큰 오해와 피해를 가져왔다고 본다. 이 책은 〈근본설일체유부율〉을 중심으로 당시 교단과 비구들의 실제 생활을 자세히 밝혀냄으로써 실로 인간 냄새 나는 비구들의 실제 일상생활을 밝힌다. 뿐만 아니라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에 의해 제기된 '대승불교 불탑 교단 기원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아울러 '대승불교 주변 지역 기원설'을 통해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적어도 4세기 전까지는 명확한 교단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학설을 제시하는 등, 대승불교 기원에 있어 기존의 정설을 반박하고 획기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새로운 학설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는다. 김주일 기자

▲저자 **그레고리 쇼펜**은?

1947년 미국서 태어나 미국 블랙힐스(Black Hills)주립대학(학사, 미국문학), 캐나다 맥마스터(McMaster)대학(석사, 종교사), 호주국립대학(남아시아 · 불교학)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미시간대학, 워싱턴대학, 텍사스(오스틴)대학, 캘리포니아(로스앤젤레스)대학, 스탠포드대학의 교수를 지냈으며, 전공은 범어 · 티베트어, 불교학이다.

말기암 · 환자 · 암 · 소멸 · 임상실험 후원비 도움 주실 분

허리 · 무릎 · 목 · 엉치 · 다리

수술, 시술, 근육치료, 부항 등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1회 체험하러 오세요.

진짜 거짓말처럼 즉각 효과를 확인 해볼 수 있는 발명특허의
세상에 유일한 원리방식의 척추 골반 목뼈를 조정하는 의료기기입니다.
말기암 환자 분들은 반드시 체험하러 오세요.
암을 극복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암 소멸에 대한 임상실험 반드시 하겠습니다.

NAVER 척추근육강화기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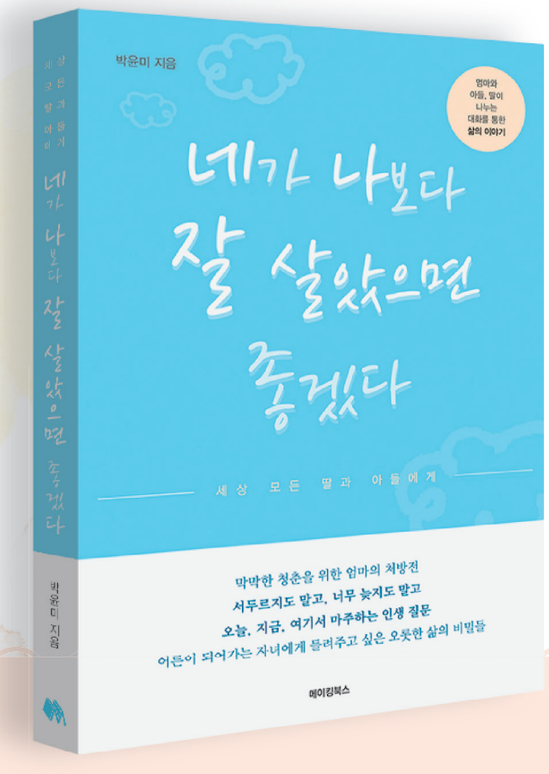


소자본지점 모집

예약 010-6575-7866

천만 불자(佛子)들의 필독서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대한 무수한 의문, 살아야 할 이유,
모든 해답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 존재합니다.

불자로서, 어머니로서,
청춘들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부모님께는 자녀에게 부처님 법을
알려줄 힘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부처님의 그윽한 자비를 누리시길 빕니다.

이 책 한권으로,
부처님 전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서는
기적을 체험하세요!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박윤미 지음 | 220쪽 | 14,800원